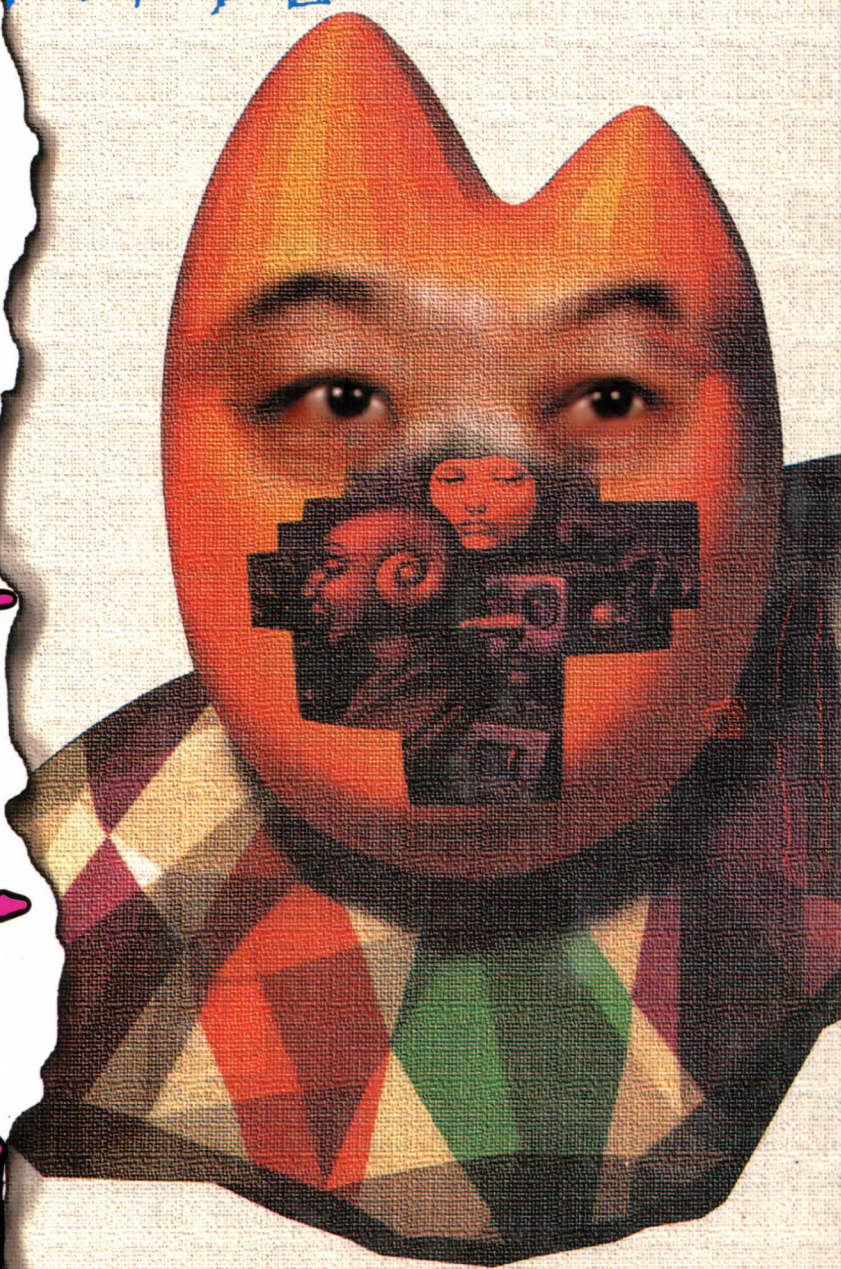


김경화 희곡집

영웅광대



해성

김경화 회곡집

김·경·화·회·곡·집

영·웅·광·대

지은이/김경화
펴낸이/김성배
펴낸곳/도서출판 혜성

1995년 10월 5일 인쇄
1995년 10월 10일 발행

Ⓣ600-013

부산시 중구 중앙동 3가 19번지 상동빌딩 3층
전화/(051)465-1329 · 465-0485 · 441-0485
팩시밀리/(051)465-0485
출판등록/1989년 4월 6일 제가 1-117호
값 8,000원

* 저작권과 협의하여 인지는 생략합니다.
* 잘못 만들어진 책은 구입한 곳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김경화 회곡집

영·웅·광·대

대인 데 없는 글장수

李 木 偶

(자유기고가)

이 책을 펴 내기에 앞서 나는 작가作家の 우고玉髓을 읽어 볼 겨를을 얻었다. 내가 알고 있기에 작가作家は 자존심自尊心이 남다른 것으로 안다. 그런 작가作家が 문외한門外漢이기도 한 나에게 원고原稿를 보인다는 것은 어찌면 불쾌하기 짝이 없는 사전검열事前檢閱로나 치부될 수밖에 없는 노릇임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러면서도 작가作家が 굳이 나에게 독후감상상문讀後感想文 몇 마디를 적어 주기를 강요하는 데는 다 까닭이 있을성 싶다. 아마도 내가 작가作家에게 공명감共鳴感을 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워낙 주변머리가 없는 내가 헤대는 피까닥스럽고도 지리 못한 옹고집스러움이 작가作家에게는 ‘택도 아닌’ 호감好感을 주고 있는 것 같다. 그건 요컨대 내가 부풀리는 말로 꾸며대지 않을 솔직한 글을 써 줄 것이라는 기대感期待感 때문인 것 같다.

一言以蔽之하고, 작가作家は 프로페셔널 정신으로 철두철미徹頭徹尾하게 살아가는 직업인職業人이다.

그에겐 연극은 직업이요 취미자 종교인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집안에서 죽이 끓든 밥이 끓든 오로지 연극에만 매달리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작가作家が 내조佐助의 덕德을 단단히 얻고 있는 행운이幸運兒라고 손꼽고 싶다.

작가作家の 작품을 오래 접해 오고 있는 나로서는 그가 「近代市民悲劇의 傳統」을 이어 나가고 있음을 물론 느낀다. 내가 굳이 그런 시숙塾生을 달지 않더라도 그 회곡劇曲 그리고 그가 연출해 내고 있는 연극을 보면 쉬이 이해하게 될 것으로 안다.

또한 작가作家は 우리것을 마냥 부여 잡고 마다하지 않는 민족문화 파수꾼이기도 하다. 그가 선택하고 있는 연극소재는 한결같다고 할 만큼이나 우리것을 금과옥조金料玉條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작가作家の 작품은 아무리 비극적인 소재素材도 억살스러운 희극喜劇처럼로 담금질되고 있다. 하여, 그 작품은 17세기 프랑스의 트레지코메디 거장巨匠인 몰리에르를 연상聯想시켜주리 만큼 관객의

김경화 회곡집

어무이, 어무이요

영
웅
광
대

●
차례

어무이, 어무이요 · 15

민초의 꿈 · 77

영웅광대 · 135

할매, 육뿔삼더 · 171

개찰량傳 · 213

영원한 타인 · 257

오동동타령 · 281

물안개 · 325

심금心鬚을 울려 주고 있다. 게다가 작가作家는 물리에르처럼 회곡會
曲을 바로 쓰고 있는가 하면 연출을 맡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막뒤
幕後에서 피리를 불고 북을 치고 장고도 친다. 일인다역一人多役인 점
에서 물리에르나 진배 없다는 말이다.

더 이상 사설雜說을 늘어 놓다가는 내 무식無識을 드러내게 되고
말기에 이만 줄이면서, 우리 부산의 탈춤 노대가老大家 천재동
才在東선생이 ‘부산에서 내 뒤를 이을 사람으로 김경화를 꼽고 싶
다.’고 나에게 들려 주었던 말로써 이 글자리를 마는다.

■ 후기

인기(人氣)없는 회곡집을 만든다는 행위를 어떻게 변명해야 할까. 기증을 해도 읽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연극관련학과의 학생들이나 참고로 읽을까 일반인들이야 관심가질 이유조차 없다는 회곡. 게다가 유명작가(有名作家)의 작품도 아니니 더욱 허망한 일이다. 그런데, 참 회한하게도 두번째의 회곡집을 꾸민다고 쟁쟁대고 있으니 가히 그 결말을 짐작할 수 있으리라.

P.C통신이란 거대한 매체가 버티고 서있는 광장에 수작업(手作業)으로 통계를 내고 있는 구시대인의 모습이랄지. 아니면 전후좌우 생각이 없던 단키호테의 몸짓이랄지. 그도 아니면 그저 제 좋아서 하는 짓거리 이랄지.....

처음 회곡집을 발간할 때의 심경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당초 광대의 일기쯤으로나 치부했던대로 이번에도 그 동인에 공언했었던 작품을 모아 후시(?) 다른 연극집단에서 놀이삼아 공연할 수도 있으리라는 기대감으로 엮어본다. 셰익스피어란 거장이 리어왕의 3막 2장에서 불쌍한 리어프에게 광대의 노래로 위안하는 장면이 있다. '지혜가 모자라는 사람이라도—바람이 부는 날도 비오는 날도—최다. 운운으로 체념을 하라. 날마다 비만 내리더라도'

다분히 운명론적인 입장에서의 충고이며 제안이다. 세상살이를 헤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바람과 비가 운명의 길(路)들을 좌지우지 하는가?

예술가는 세상의 바람이나 비를, 지혜의 부족이나 생활의 기틀이 부족함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특수한 사람이라 생각해본다.

<없음>에서 <있음>을 창조하는 사람. <있음>에 만족하지 않고, 차 있는 그릇을 모두 비워내기를 끊임없이 시도하는 사람이 예술가여야 한다고 주장해본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도 곧 공허한 것임을 알게 되니 그것이 문제로다.

이 한 권의 회곡집이 어디엔가 쓰임새가 있기를 기원해본다. 이 바람이 공허한 메아리로만 남게 될지라도.....

우리의 일상에서 아침생각과 저녁생각에 차이가 나듯이 이 회곡집 속의 한 작품이 바탕이 되어 재미있고 그럴듯한 한마당의 놀이극으로 변해진 상태로 꾸며진다면 더이상 바랄 나위가 없다.

이 책이 나오도록 애써주신 어릿 광대의 주위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